



1868~1943

# 날으는 홍범도장군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110-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신교동) 발행인:이종찬 편집인:홍성덕  
TEL: 02)734-8851~2 FAX: 02)722-0251 http://www.hongbumdo.org

제7호

겨울

2015. 12. 7



〈추모식 귀빈 기념 사진〉

## 홍범도장군 순국72주기 추모식·학술회의 성대히 개최

학술회의 주제: 홍범도 장군의 무장투쟁에 대한 국제적 평가

사단법인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는 지난 10월 23일 장군의 순국 72주년을 맞아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불교전통문화공연장에서 추모식과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추모식에는 문태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보훈단체 임원들과 일반 회원 등 2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추모식에는 기념사업회에서 초청한 중국 연변인물연구회 집행위원장인 김진검 전 연변조선족자치구 부주장과 최후택 연변대학교 교수, 박경식 연변 조선족기업가협회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추모의 분위기를 더욱 고양시켰다.

문준진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추모식에서 이종찬 이사장은 “기념사업회 창립이후 지난 10년 동안 장군의 독립운동 전개과정과 업적을 연구하여 장군의 위상을 무장독립 투쟁의 최고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하고 장군의 업적을 세계사적으로 조명하여 전 세계 민족해방투쟁의 영웅으로 추대해야 된다고 역설하였다.

김진검 집행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하여 “홍범도장군의 불후의 업적과 정신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정신적 재산”이라고 말하고, 홍범도 장군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중국의 조선족인물연구회와 우리 기념사업회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자



〈학술회의 발표 토론 장면〉

고 제안하였다.

한편 학술회의는 신효승 국장의 사회로 진행하여 봉오동·청산리전투에 대한 러시아의 평가를 윤상원 동국대학교 교수가 발표하였고, 중국의 평가는 최후택 연변대학교 교수, 그리고 일본의 시각은 신주백 연세대학교 연구교수가 발표하였다. 한시준 단국대학교 교수 주관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심헌용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한상도 건국대학교 교수, 황선익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등이 참여하여 토론을 벌였다.(발표요지 4,5,6면 게재)

## 추 모 사

“기념사업회 창립 후 지난 10년간 꾸준한 노력으로  
홍범도 장군의 위상을 무장투쟁의 최고 영웅으로 자리 매김”

이 중 찬(기념사업회 이사장,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



먼저 오늘 여천 홍범도 장군 순국 72주년과 기념사업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추모식과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 생애를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바치신 홍범도 장군님을 추모하고, 장군님께서 남기신 위업과 독립운동정신을 조명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지리를 함께 했습니다.

저희 기념사업회에서는 봉오동전투 전승 기념일인 6월 7일에는 중국 봉오동전투 현장에서 조선족 동포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전개과정과 업적을 연구하여 장군의 위상을 무장독립투쟁사의 최고의 영웅으로 자리 매김하였고, 장군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학술회의에서는 그 동안 연구 발표된 논문을 토대로, 홍범도 장군의 무장투쟁 활동을 총정리한다는 입장에서, 주변국가의 시각과 평가를 고찰함으로써 장군의 위업을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조명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홍범도 장군을 연구하였고 장세운 박사, 반병률 교수, 이동순 교수, 김삼웅 관장과 김유진 선생 등 여러분이 장군의 평전을 저술하여 장군의 역할을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앞장 서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과 보다는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장군께서 1920년 이후 러시아에서의 독립군 활동이나 무장 해제 이후 현지 정착과정, 1937년 강제 이주 이후의 카자흐스탄에서의 역할에 대하여는 충분히 연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안장된 장군의 유해

송환문제를 광복70주년기념 기획단과 협조하여, 현지 정부 및 고려인 동포들과 협의하여 고국으로 봉환하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도 요원한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념사업회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께 보고드릴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작년 추모식에 참여하셨던 수남촌 라철용 촌장이 금년 추모행사 개최문제와 수남촌에 봉오동전투기념관 건립문제를 제기하고, 기념관 설립을 위하여 도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오늘 참석하신 연변인물연구회와 연변노과학자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이미 전국정치협상회의 제12기 3차 회의에서 건립방안이 채택되어 지린성위원회에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연변인물연구회 측에 충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기념사업회에서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홍범도 장군에 관련된 연구 논문을 모두 수록하는 자료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홍범도 장군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과 학술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을 모두 망라한 종합 자료집을 내년 2월 중에 발간하기 위하여 작업 중이오니,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추진 중인 자료집은 저희 기념사업회가 홍범도 장군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나아가서 독립운동사와 근현대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홍범도 장군의 72주기 추모식과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독립운동의 유산을 지키고 현창하시는 김진검 위원장님 일행 분들께 거듭 감사말씀 드립니다.

김진검 연변인물연구회 집행위원장 추모사

## 홍범도장군 업적과 정신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재부(財富)



홍범도 장군의 순국 72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여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뜻 깊은 모임에 초청하여 주신 이종찬 기념사업회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범도 장군은 거룩하신 민족 영웅이시며, 세계에 이름을 떨친 국제적 인물입니다. 연변은 홍장군께서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 등 반일무장투쟁의 기치를 높이 든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수많은 반일무장단체의 중요한 활동기지였습니다.

홍 장군의 불후의 업적과 정신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정신적 재부라고 생각합니다.

연변 인민들은 일제 침략자들과의 결사적 투쟁에서 빛나는 공헌과 엄청난 희생을 하였습니다. 연변의 항일열사는 3,400여 명이며, “연변은 산마다 진달래 꽃, 마을 마다 열사 기념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추모식 참석을 계기로 중국 연변인물연구회와 홍범도기념사업회간 교류를 한층 보장하고 두 단체 간 협력을 돈독히 하여 합작연구, 정보교환 등 각 분야에서 원활한 협력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검 집행위원장 일행, 우당기념관 방문

홍범도 장군의 추모식에 참석한 김진검 연변인물연구회 집행위원장과 최후택 연변대학교 교수, 박경식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 상근부회장 내외분 등은 10월 24일 오전 우당기념관을 방문하였다.

마침 이종찬 이사장이 지방출장 중이라 황원섭 이사가 기념사업회의 운영현황과 우당 이회영 선생의 독립운동 과정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진검 위원장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와 인물연구회 간의 교류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일단 기념행사에 상호 방문하는 문제와 학술교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편 작년 추모식에 참석했던 라철룡 도문시 수난촌장이 제기한 “봉오동전투기념관” 건립은 연변인물연구회와 연변노과학자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이미 전국정치협상회의 제12기 3차 회의에서 건립방안이 채택되어 지린성위원회에서 추진 중이라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 홍범도장군 학술회의 논총 발간 회의

지난 11월 20일 오전 홍성덕 상임이사 주재로 2010년 이후 홍범도 장군 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을 수록한 종합적인 학술회의 논총을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상임이사 이외에 홍헌일 감사, 손광춘·황원섭 이사와 문준진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책임을 맡은 신효승 국장이 제시한 발간계획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논총의 내용은 2010년 이후 6회의 학술회의 발표논문을 대상으로 하고, 2000년 이후 학계에서 발표된 홍범도 장군 관련 연구 논문과 단행본의 목록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논총은 일단 논문 발표자에게 발표 내용을 보내 검토와 보완을 거쳐 내년 1월 말까지 원고를 접수하여 2월 중에 발간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논총 발간의 목적은 그 동안 발표한 논문을 종합 정리하여 학계에 제공함으로써 홍범도 장군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장군의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주요 도서관과 각 대학교의 역사연구실에 배포하기로 했는데 이 문제는 손광춘 이사가 담당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흥범도 장군 순국72주기 추모학술회의 제1주제

##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대한 러시아의 평가

윤 상 원(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러시아 원동에서 전개된 한인들의 무장투쟁은 간도, 특히 북간도와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1920년대 항일무

장투쟁에 대한 연구는 간도지역에 집중되고, 연해주에서 이루어진 항일 빨치산 투쟁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공간 개념에서 볼 때 하나의 공간으로 봐야 한다.

특히 봉오동, 청산리전투의 주역으로 알려진 흥범도 장군이 북간도에서 활동한 기간은 1919년 하반기부터 1921년 초까지 1년 6개월에 불과하다. 1907년 함경도에서 의병전쟁이 실패한 후 연해주로 망명한 흥범도는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연해주에서 보냈다.

연해주로 망명했던 흥범도가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북간도로 넘어온 때는 1919년 10월이었다. 그 시기는 상해임정과 대한국민회의의 통합이 결정되어 이동휘가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한인사회당의 주력들이 상해로 옮겨가던 시기와 일치한다. 상해로 간 이동휘는 곧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임시정부의 독립운동방향을 기존의 외교론에서 무장투쟁론으로 바꾸어 나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간도와 연해주에 산재하여 개별적으로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던 여러 독립군 부대들을 통합하여 단일한 대군단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다. 흥범도가 북간도로 간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즉 이동휘는 상해에서 독립전쟁을 선포하고, 흥범도는 독립전쟁을 수행할 대규모 통합부대를 조직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흥범도가 이동휘와 협의하고 북간도로 갔다는 설명은 물론이고, 이들은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를 흥범도가 진행한 독립군부대 통합의 과정에서 거둔 승리였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이 통합의 노력이 실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 바로 ‘제1기 독립군 운동’이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로까지 나아갔다.

그 실패의 원인은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던 독립군부대 지휘관들, 즉 조선시대 특권계급인 양반의 자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한국시대의 관료계급 또는 봉건적 영웅주의자들이 주도권쟁탈에 대한 야욕과 허영심, 자만심으로 국가의 독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도 자기의 사욕을 충족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소련시대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를 설명하는 일반적 평가방식이었다고 생각된다.

흥범도 장군과 함께 봉오동전투에 참전한 김재규와 이종학의 회고록에 따르면, 봉오동 전투의 승리는 흥범도의 전술역량에 따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당시 맨 윗봉우리로 올라가서 매복했기 때문에 일본군을 격퇴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고, 독립군부대의 통합은 단순한 기계적인 통합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통일된 지도체제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흥범도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청산리 전투에 참전한 강근과 김재규의 회고에 따르면, 김좌진의 군정서 군대와 흥범도의 연합부대 간에 연합전투는 없었고, 각자 자신의 전투를 치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청산리 전투는 흥범도의 유인책과 매복작전을 통해 승리한 전술적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대학교재에 나온 내용은 대부분 현지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라기보다는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 성과들을 번역하여 기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러시아의 독자적 평가라기보다는 한국에서의 평가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연해주와 간도를 하나의 공간 속에서 바라보지 않고 봉오동, 청산리전투를 러시아지역에서 진행된 한인 빨치산운동과 분리하여 서술하는 태도는 소련시대보다 오히려 퇴행한 평가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러시아에서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의 올바른 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 스스로 간도와 연해주를 하나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 봉오동, 청산리전투를 연구하는 방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연구를 우리들 내부에서만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한국학 연구자들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러시아의 한국사연구 안으로 투입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흥남도 장군 순국72주기 추모학술회의 제2주제

## 독립전쟁에 대한 중국의 시각

최 후 택(연변대학교 교수)



중국 조선족은 한반도에서 이주한 과경민족이다. 17세기 초반부터 한민족은 강제로 중국의 동북땅에 이주하였고 18세기 초반부터 대량 천입하였다. 동북지역 총인구의

6%도 되지 않는 조선족 이주민들이 7%나 넘는 척박한 토지를 개척하였고 수전을 개발하여 동북지역, 나아가 중국의 경제발전사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들은 집단거주지역마다 사립학교를 세워 반일민족계몽교육을 전개하여 동북지역의 근대문명사에도 크나큰 공헌을 하였다.

1910년 한반도가 일제에게 병탄된 후 그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동북지역에 기지를 세우고 수시로 조국에 들어가 일제침략자들을 기습하였다. 특히 그들은 연변지구의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대규모적인 유격전으로 일제침략자들에게 침중한 타격을 줌으로서 무장독립투쟁역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남겼다. 중국공산당이 성립된 이래 줄곧 한국독립운동을 지지하였다. 재중한국인이 전개한 동북토지개발, 반일민족독립투쟁, 특히 봉오동전투, 청산리대첩의 승리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들도 중국의 기타 민족과 똑같이 정치권리, 토지소유 등 경제권리를 향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931년 동북지역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면서 재중한국인들은 재차 일제의 노역을 받게 되었다. 중국공산당은 그들을 발동하여 중국의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여 일제침략자들을 소멸함으로써 양국의 민족독립을 쟁취하도록 꾀기시켰다. 1945년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한국과 중국은 민족독립을 맞이하였다. 250여만 명 재중한국인 중에서 해방과 더불어 150여만 명이 귀국하고 나머지 한국인들은 계속하여 중국의 해방전쟁에 뛰어 들었다. 새중국이 건립되면서 중국공산당은 재중한국인에게 민족자치의 권리를 부여하였고 그들은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최 교수는 조선족 발전방향 방략연구에서 “봉오동전투의 승리는 조선은 물론 일제의 침략을 당하고 있는 중국인민들에게도 오로지 무장투쟁만이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광휘로운 전투 실례”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김춘선 교수는 “봉오동전투의 승리는 조선 인민들에게 반일투쟁 승리의 신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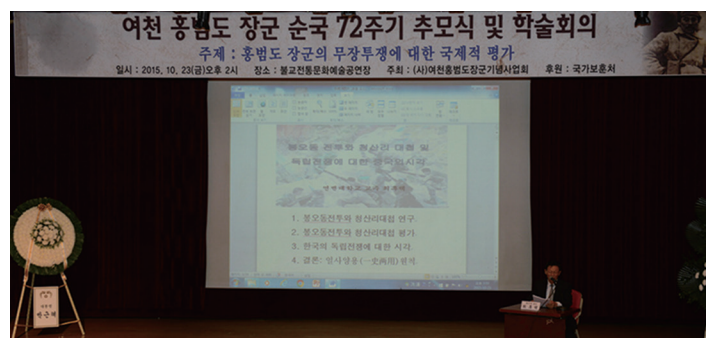
복돋아 주었으며, 반일단체들의 연합통일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청산리 전투에 대하여 중국인 교수 리홍원은 청산리대첩을 “동북지구 조선족 인민들의 반일 의지를 고무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국 민족들의 반일투지를 고무시켰다”고 평가하였다. 김춘선 교수는 “일본 제국주의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통치와 나아가 중국대륙 정책을 좌절시켰다”고 평가하였다.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을 중국 조선족 반일무장투쟁역사로 평가하든 또는 한국인의 반일민족독립운동투쟁역사로 평가하든 중국 경내에서 이뤄진 업적이라는데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독립투쟁사의 한 페이지이며, 중국혁명투쟁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중국경내에서 진행한 한민족 애국지사들의 반일투쟁, 한국임시정부의 독립투쟁, 광주황포군관학교 혹은 국민혁명군에서 싸운 한민족지사들의 투쟁들을 모두 한국독립전쟁의 주요한 내용으로 또한 중국혁명투쟁에 대한 지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중한 관계는 두 나라 인민들이 함께 일제침략자들을 무찌르던 역사를 더욱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동시에 당시 독립투쟁을 전개하던 전적지에 두 나라의 후대들에게 애국주의 정신을 함양하는 장소를 마련하는 사업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 중국정부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처단한 장소에 기념관을 세우고 충칭(중경)에 광복군 기념관을 설립한 것처럼, 연변에도 조선동포들의 제안에 따라 봉오동전투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한다.

이는 한민족으로서 영원히 거역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역사기록이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민족의 후대들이 민족역사와 민족의 뒀을 대대로 이어가게 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함께 분투해야 하겠다.



홍범도 장군 순국72주기 추모학술회의 제3주제

## 무장투쟁에 대한 일본의 시각

신 주 백(연세대 연구교수)



대부분의 일본인이 한국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일제 강점기 동안 한국인의 저항을 조금이라도 아는 일본인조차 독립전쟁이란 각

도에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반대로 보면, 식민지 시대에 한국인들이 받았던 고통에 대한 관심이 없고 주목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지배가 합리화하거나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일본근대사 인식에서 식민지 조선의 역사는 배제되어 있다. 또한 침략의 역사는 가급적 축소해서 이해하거나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려 한다.

항일투쟁과 한국의 독립을 위한 방안으로서 “독립전쟁”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07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 이후부터였다. 독립전쟁이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독립군을 양성하는 한편, 정치경제적인 실력을 양성하여 실력을 갖췄다가 일본이 미국, 중국, 러시아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를 기회로 삼아 일본을 상대로 반일세력의 일원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하여 독립을 쟁취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일본 측의 시각을 보면, 봉오동전투나 청산리 전투에 대한 분석 논문이 없고, 한국 광복군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 논문도 없다.

이후 일본사회 내에서 반성적 움직임이 있었다. 민간차원에서 한국과 역사교류를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원폭피해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인 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나타났다. 그것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내용이 개선되는 방향으로도 이어졌다. 독립전쟁과 관련해서 보면, 안중근이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한국을 병탄했다며 병합의 일부 책임을 안중근에게 떠넘겼던 서술이 사라지고, 3.1운동 이후에도 한국인의 항일운동이 지속되었다는 표현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1930년대 국내외에서의 항일운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만한인조국광복회(在滿韓人祖國光復會)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의 김일성을 직접 거명하고, 그의 항일투쟁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인의 저항이 일제

가 패전할 때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며, 중일전쟁 와중에 한국인도 싸웠다는 사실을 일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에 일본의 중고교 역사교과서에서는 임시정부나 한국 광복군에 관해 위의 인용문과 비슷한 분량으로 서술되었다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일본사회에서 진보적인 성향이든, 한국사를 긍정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한국인의 항일운동에 대한 이미지는 시기적으로 보면 1930년대에, 공간적으로 보면 만주지역에 맞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현재의 남북한의 분단이라는 사실과 관련지어 보면, 항일운동에 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일본인의 역사시선은 한국보다 북한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결국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항하여 독립전쟁과 같은 한국인의 독립을 향한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본사회가 제대로 인지한다는 사실은 쉽지 않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한국인의 저항에 대해 알고 학습하는 현상은 일본사회의 과거사 극복과 맞물려 있으며, 한국인에 대한 무시 내지는 과소평가를 일본인 스스로 극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달리 말하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상호교류는 결국 일본의 시선을 교정하는 노력임과 동시에, 민족운동사에 대한 일본인의 재인식을 촉진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의 부정적인 일본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과정이라는 함의가 있음을 잊어서도 안 될 것이다.



홍범도 장군가 소개

김진검 작사, 김경문 작곡  
2015년도 봉오동 전투 전승 기념행사를 계기로

홍범도 장군의 노래

노래 가사를 보면

보아라 장백산 줄기줄기 따라  
보인다 봉오동 총소리 울렸던 산  
의병대의 그날 독립군의 그날  
백사장에 발자국을 남겨 놓았다.  
청바위의 깃자국을 남겨 놓았다.  
불타는 애국심을 가슴에 지니고  
끈기로 지혜로 싸워 이긴 그대여  
전설적인 영웅 항일령장 홍범도 장군

마치 치열했던 전투현장의 모습과 독립군의 불굴의 용기와 애국정신을 눈 앞에서 보는 듯이 묘사하고 있다.

또한 전투현장에서 홍범도 장군이 헌신적으로 지휘하는 영웅적인 용맹성을 느끼게 한 작품으로 듣는 이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반일무장투쟁의 최고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기념행사와 추모모임을 개최하고 있는데, 추모하는 노래가 없음을 아쉽게 생각했었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랫말에는 장군의 위대한 업적과 추모의 정을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작곡가인 김경문(金京文) 선생은 훈춘시 출신으로 연변대학 예술학원을 졸업했고 훈춘시 군중문화관 부관장을 역임했었다. 대중가요 창작사업에 종사하는 한편 현재 연길시에서 “두만강 창극단” 단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작곡가는 홍범도 장군 노래 작곡할 때 1920년대 유행곡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에 유행하는 선율로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었는데, 연변인물연구회의 의견을 존경하고 연변 작곡가 선배들과 협의하여 한층 다듬어서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홍범도 장군에 관한 노래는 1920년 당시 부르던 “날으는 홍범도 장군가”(작사 미상, 작곡 홍성규 교수)와 함께 두 곡이 되었다.

(정리: 홍성덕 상임이사)

지난 6월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 현지에서 우리 동포들과 함께 봉오동전투 제95주년 승전기념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김진검 연변인물연구회 집행위원장이 작사한 곡이다. 김 위원장은 라철룡 수남촌장으로부터 현지 기념행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봉오동전투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국과 중국 동포들의 역사적인 합동행사를 보다 의미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직접 노랫말을 쓰고, 김경문 두만강 창극단 단장이 작곡하였다.

## ...임원동정...

### ○이종찬 이사장



지난 11월 23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총회가 끝난 후에는 임시정부기념관의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위성에 관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 ○이우재 고문(사단법인 매헌윤봉길월진회 회장)



월진회에서는 지난 8월 말, 광복 70주년과 윤봉길의사 의거 83주년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의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청소년 83명을 초청, “인성교육 참여 및 나라사랑 체험 아카데미”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1박 2일 동안 효창공원 백범기념관과 매헌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 ○김유진 고문(고려대 4·18 혁명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



김 고문은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4·18을 기리기 위해 ‘고려대학교 4·18혁명 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려고 추진 중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한다.

### ○홍성덕 상임이사(죽헌문학 동인지 창간위원, 수필가)



“죽헌문학” 창간위원회 주관으로 12월 9일 12시, 여의도 홍보석에서 죽헌문학 동인지 창간호 출간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창간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홍 상임이사는 창간호에 자신의 수필 2편을 게재하였다.

### ○홍헌일 감사(서대문감옥원형복원 연구회장)



2012년부터 서대문감옥과 중국 여순감옥 전시관 간에 상호전시, 문화정보 및 학술교류에 위한 의향서를 추진한 결과, 10월 30일 양 박물관 간에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어서 “세계 문화유산의 가치로 본 서대문형무소와 여순감옥”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영철 이사(4·19포럼 회장)



4·19포럼에서는 지난 10월 15일 고당조만식선생기념관 강당에서 이만열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4·19혁명과 국정교과서 문제”를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미자 이사(종로구 구의원)



종로구의회 2015년도 제2차 회의가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개최된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이 이사는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 ○홍이표 이사(애지모 대표)



사회적 모범기업인 “애국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소비자모임”(애지모)에서는 금년에 많은 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애지모그룹’은 독립유공자후손을 돕는 우당장학회후원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21세기 환경교육중앙회후원회, 환경지도자/환경봉사지킴이 기자단육성, 청소년/학부모 비전스쿨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홍원기 남양홍씨 남양군파대중중회장



최근 “신문인생 60년 신문산업 어제와 오늘” 제하의 자전적인 평론집을 출판했다. 홍회장은 현재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명예회장이기도 하다.

### ○김환길 독립운동사교육연구회 회장(가락고등학교 교장)



11월 7일, KBS 1TV(채널 9)에서 1시간 동안 “학교 운동장 프로젝트”의 제1부 ‘마음눈금 키우기’에 가락고등학교의 스포츠 활동을 소개하였다. 청소년의 고민과 좌절을 스포츠활동을 통하여 극복하고, 우정을 키워가는 과정을 엮은 프로그램이다.

### ○리철용 연변 수남촌 촌장



8·15 광복절 행사의 일환으로 봉오동전투 기념비에 헌화하고, 어린이들에게 봉오동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해설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사랑송으로 자랑스런 독립투사들을 찬양하는 활동을 하였다. 앞으로, 연변소년궁과 합작하여 역사문화 전통 실천 체험활동을 갖기로 하였다.

### ○김도경 국장(한국여성문예원 원장)



12월 4일(금) 오후 신당동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서울문학축제 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올해도 서울문학대상, 장금생문학상, 시낭송 대상 등 시상과 새로 등단한 문학상 신인에게 등단패를 수여하였다.